

卷 頭 辭

西洋사람은 人間은 努力하는 限 迷惑하기 마련이라고 했지만(피에테), 東洋人의 智慧는 六十에 이미 不惑의 境地를 초월한 耳順을 論한다. 그러나 그것이 凡庸한 人材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今年 9月 5日로 現在 法科大學長으로 계신 箕堂 李漢基博士께서 回甲을 맞게 되신다. 선비品格의 淹正한 風貌를 지니신 箕堂先生의 경우 그것은 비단 耳順의 圓熟으로만 意味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이처럼 紀念論文集을 엮게 된 뜻이 있다.

돌이켜 보전대 우리가 우리의 學問으로서의 法學을 始作한 것이 三十有餘星霜이요, 解放直後의 不毛의 學問의 風土에 이어지는 戰亂의 渦中에서 箕堂先生께서 法科大學과 因緣을 맺은 이래 온갖 迂餘曲折의 苦樂을 같이 한 것이 올해로 꼭 四半世紀이다.

그간의 劬한 國內外的 試鍊을 겪으면서도, 解放이후 民族史의 새로운 章을 맞이하여 先驅의 意志로서 우리 國際法學의 礎를 마련하였고, 그 初志를 一貫해서서 斯學을 一生의 課業으로 삼아 始終如一 不斷히 精進해오신 箕堂先生의 學者로서의 발자취가 곧 우리 國際法史의 살아있는 縮圖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重厚한 人品을 지니신 스승이요 教育者로서 後進의 指導·鞭撻 및 養成·薰陶에 心血을 기울이시고, 研究하는 學者로서 항상 誠實·眞摯한 態度와 情熱을 가지고 邁進하시어 그 研究成果의 傳播·應用에 盡力하셨으며, 또 때로는 政策關與者로서 國事に 陰으로 陽으로 參與·助力해 오시는 등, 先生의 넓고 깊은 學問活動은 先生께서 斯界의 碩學이요 韓國의 代表的 知性임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거니와, 先生이야말로 과연 우리의 자랑인 것이다.

더우기 이번 先生께서 大韓國學術院 會員으로 選出되셨음은 겹친 慶事이거니와 그간의 의로운 學問의 길에 獻身해서서 이룬 功業이 結實한 마방한 榮譽로서 기리는 바이다. 先生 現在 이미 先生의 指導를 받은 많은 有能한 學者·實務者들이 各其 自身の 分野의 第一線에서 多彩롭고도 精力의인 活動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미로소 다른 모든 榮譽를 固辭하시고 묵묵히 學界에 몸담아 教育과 研究에만 執念하셨던 心中의 깊은 뜻의 一端을 세게 알 수 있는 우리로서는 그 동안 韓國國際法學界를 先導해오신 熱과 誠 및 旺盛한 意欲으로 지금도 여전히 講義·教育行政에서 國際會議·國事諮問에 이르는 廣範圍한 學問生活을 계속하시는 것을 대할 때면 자연 敬慕의 念과 더불어 마음에 든든한 파가 있다.

昨今の 世界情勢는 점점 自國의 利益追求라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海洋資源을 둘러싼 銳利한 利害의 對立이 더욱 深化되리라고 豫期되는 이때에, 날로 急變하는 國際的 狀況에 올바르게 對處함에 있어서 늘 國家的·民族的 次元에 立脚한 學究의 意味를

強調, 愛國의 情으로 이를 몸소 實踐해 오신 先生께 바라는 우리의 期待 또한 莫重한 바가 있으니 箕堂先生의 學問의 叡智와 炯眼이 前進의 길잡이가 되리라 確信하며, 다만 앞으로의 내내 健安하심과 學問의 깊이가 더해 가기만을 衷心으로 祈願할 뿐이다.

이제 이처럼 未洽한 冊子를 감히 捧呈하면서 오히려 先生의 赫然한 歷程에 一斑의 累가 될까 悚懼스러운 心情도 不無하지만, 筆者 諸位께서 기꺼이 精誠을 다해 執筆해 주신 研鑽의 結實들로서 芳香 길으리라 믿는다.

箕堂先生의 還曆을 慶賀하면서 이 기회에 앞으로의 보다 더한 指導를 바라는 동시에 분발된 努力과 發展을 期約하여 보지만, 學問 等を 통해 끊임없는 刷新을 이루려는 우리의 努力도 先生의 生涯에서 드러나듯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삶이 眞實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경 不絶한 求道의 길이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이 告白해야만 한다는 하나의 反證인지도 모르겠다.

Ex parte enim cognoscimus (1. Cor. 13, 9).

우리의 認識은 不完全하니라

그러나 이러한 有限性的의 是認이 努力回避의 辨明이 아니라 참된 人間條件의 洞察일 때 벌써 우리의 地盤은 단단하고 學問 또한 이를 바탕으로 墜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本研究所의 所長職을 맡고서 刊行하는 첫 「法學」이 평소 個人的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받아온 尊敬하는 箕堂 李漢基博士의 回甲紀念集이 된 榮光을 기쁘게 玉稿를 許與해 주신 여러 教授님들을 비롯하여 이 冊子가 나오기까지 協助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돌리고 싶다.

1977. 6.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所長

金 致 善